

전통마을의 문화지속성 평가*

- 경북 영천 선원리를 대상으로 -

고석철 · 장병관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원예조경학부

An Evaluation on the Cultural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Traditional Village - The Case of Sonwon-ri Village in Youngchon -

Ko, Suck-Chul · Jang, Byoung-Kwa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odel of cultural sustainability in the traditional village. Cultural sustainability is being advanced by promoting the viability of traditional arts and the unique regional features of traditional culture, such as folklore, traditional landscapes, buildings and other environments of outstanding historical value.

These cultural resources were also created or occurred at specific geographic locations at certain points in time by different individuals. The content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del using indicators for cultural sustainability, and to apply and evaluate the model. In order to evaluate the model, Sonwon-ri village in Yongchon, located in Kyungshangbuk-do, was selected as the case study are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Sonwon-ri village has maintained the vernacular landscape except at the entrance of village. Also, the village people have pride and have adapt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 2) Sonwon-ri village has a self-sustaining system and circular network within its environmental capacity. Sonwon-ri village has many historical sites and buildings such as important folk resources, cultural assets, traditional houses and pavilions.
- 3) The people know the theory of feng-shui which interprets the location of village in relationship to

* : 이 논문은 2001년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한 지원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a crane mountain with the village situated as a crane head. These symbolic and cultural elements have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boundary of the village.

From the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Sonwon-ri village kept many cultural sustainability indicators in terms of active factors, physical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By analysing the participation of different scientific disciplines and identifying disciplinary categories,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understanding how cultural sustainability is subjected to research in the field of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Key Words : Cultural Sustainability, Vernacular Landscape, Self-sustaining System, Theory of Feng-shui, Indicators

I. 서론

1970년대 이후 고밀도·양적 증대 위주의 아파트 주거환경은 다양성 결여, 외부공간의 비활성화, 인간소의 현상과 근린성 약화 그리고 기타 환경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은 인근 농촌지역을 도시화시키면서 고유의 전통적인 농촌주거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생태계의 불균형과 인간문화의 부재에 의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태적 문화적 경관을 경시하고 기능과 이상향의 개념으로 물적 경관을 취급한 결과라고 간주하고 있다(신용석의 2인, 1988).

최근 '지속 가능한 사회'란 패러다임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념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은 전통적, 지방적, 경험적 또는 자연에 대한 지식의 토대 위에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Smith, et al., 1992). 그리고 생물지역계획은 근본적 가설, 문화적 가설, 조작적 가설을 주장하면서 문화, 정치, 정신, 예술, 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이 개념의 중심사고는 자연체계와 문화의 통합이며 생물지역을 정신적 장소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Dodge, 1990).

지금까지 전통마을은 자원의 재활용과 안정된 생태계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인간문화와 그의 하부문화에 의해 지속 가능하였다고 본다. 즉, 농촌경관은 친환경적인 토양보전 및 토지경영방법, 자원이용방법, 사회규약 제도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간직할 수 있었다(Thayer, 1994).

오늘날 생태철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거환경의 조성은 단순히 물적 계획의 혁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환경개발 시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그리고 문화환경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주거환경개발에 문화지속성 개념을 포함시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물적 계획을 수립할 때 거주민의 측면에서 만족스런 주거환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새로운 주거환경개발 시 문화지속성의 개념을 계획과정에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둘째, 기존의 문헌을 통해 문화지속성 지표를 연구하였으며, 셋째, 설정된 문화지속성 지표를 사례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문화지속성과 문화경관

문화는 광범위하게 한 세대에서부터 다른 세대까지 전해지는 인간집단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즉 경제적 계약, 사회관습과 관계, 정치 및 사상, 예술표현 언어와 종교행위는 문화가치와 행태를 반영한다. 문화경관은 중 집합의 출현유무, 분포 그리고 풍부도를 지배하는 생태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유형과 피이드백 메카니즘을 조성하는 인간행위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가지는 지리적 영역이다. 문화지속성이란 용어는

역사 및 전통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장소성, 지역공동체 의식 그리고 역사적, 전통적 환경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Almo, 2000).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다차원적 특성은 총체적 개발의 기본 틀에다 문화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지속성의 평가는 다양성과 변화, 총체주의, 독립권 그리고 상대주의의 원칙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Harry, 1996). 특히, 문화지속성 측면에서 역사지역의 토지경관속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의미성, 역사적 보전 경계설정을 포함하는데, 평가지표로 자연상태유, 경계구역, 도로, 건물구조의 지방색 그리고 지속되는 전통행위 등이 있다. 또한 농촌경관원형의 특성을 보유하는 정도는 역사적 연구와 야외조사를 통한 경관의 변화유에 의해 규명될 수 있다(<http://www2.cr.nps.gov/tps/briefs/brief36.htm>).

생태적 지속성과 문화자원의 보전은 상호보완적이다. 대개 기념되는 역사적 사건과 문화가치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들 개발에 가치를 가지는 대부분의 자원은 기후, 자연장소 그리고 이용 가능한 향토재료에 대한 반응이다.

이상의 문화지속성 지표와 문화경관지표에서는 보전 대상이 되는 문화자원과 보전영역에 대한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요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농촌 및 전통마을의 환경요소

본 연구에서 전통마을이란 전래의 유교적 향약의 촌규와 경제력 및 유교문화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의해 씨족결합과 조상숭배의 의식행위로서 나타내는 의례공간과 수기공간이 마을내부에 중심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종가가 성역적 위치와 영역적 상징성을 지닌 반촌부락을 의미한다(김한배, 1981).

전통마을이 오랫동안 지속하여 올 수 있었던 이유로 첫째, 주변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순응하여 조화로운 삶을 선택하였으며 둘째, 주민들의 가치관, 의식구조 즉 시대정신이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며 지금까지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고 있다(김근호, 1987). 또한 농촌마을의 공간구조는 마을공간과 공간요소, 그

리고 공간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간개념은 주민들의 거주공간을 결정하는 마을의 물리적 영역을 구분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정주공간의 계획에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다. 즉 마을의 공간구조는 형태와 크기, 자연관, 사회·경제구조, 유교적인 의식구조 등의 영향으로 그 형태와 공간적인 질서가 형성되며(황경진, 1987), 동족마을의 공간구조의 특성은 정위성, 연계성, 상관성, 위계성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한필원, 1991). 또한 농촌문화경관을 자연적, 문화적 동적인 힘의 측면으로 보아서 11개 특성의 지표로 설명하고 있다(<http://www.cr.nps.gov>).

이상과 같이 농촌 및 전통마을의 환경지표에서 고찰해보면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마을주민의 생활상과 가치관에 의해 전통농촌마을의 공간은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주거단지의 지속성 원칙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 개발은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예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의했다(United Nations, 1996). 또한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친환경적 개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생태계 원리의 반영, 자연 및 물질순환의 유지,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설명되었다(양병이, 1997). 그리고 주거단지의 지속 가능한 실천전략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오염과 폐기물, 자연자원의 4가지 분야 18항목이 제시되었다(Breheny and Rookwood, 1993). 환경친화 주거단지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친환경적 주거단지 계획요소가 소개되었다(이규인, 1997; 박원규, 1998). 또한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계획모형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12가지 중첩체계 즉 경관생태학과 생물다양성, 문화·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가치들, 도시설계·주거단지·건물형태·구조, 교통과 순환, 농업, 물 공급과 이용, 하수처리, 우수관리, 에너지 공급, 물질흐름의 과정과 재활용, 산업·고용과 경제, 레크리에이션요소의 상호 주고받는 체계로 설정되었다(Thayer, 1994).

이상의 주거단지의 지속성은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 3가지 영역이 다시 중간구성과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교육·윤리 측면의 문화적 지표가 있기는 하나 그 비중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처럼, 현재의 주거단지 지속성 원칙은 그 지역의 문화적 환경 요소를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대상지의 선정

경북 영천시 입교면 선원리 마을은 대부분 정씨 일가로 이루어진 동족마을이며, 많은 제와 정자 등의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으며,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유교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또한 이 곳은 지속 가능한 체계로 현재까지 내려온 전통마을로서 문화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지로 우선 판단할 수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거주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구수행에 편리한 이유도 부차적인 선정의 사유가 되었다.

2. 연구과정과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속 가능한 지표의 설정과 평가·적용 시 문화지속성 측면의 지표를 개발하여 주거단지의 설계·계획시 도입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 농촌마을 그리고 전통마을에 대한 문헌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문화지속성 지표를 개발하여 이것을 사례대상마을에 적용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과정과 방법은 국·내외의 관련 문헌과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가모형으로서 문화지속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어 사례 대상지의 현장답사를 통해 공간 및 문화경관 특성을 분석하여 대안적인 지속 가능한 문화지속성 지표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표에 대한 평가는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직접조사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정성

적 평가를 하였다.

3. 전통마을의 문화지속성 지표

Verherst는 문화지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사회 평가는 사회적·경제적 또는 최근에 환경적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문화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세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련된 패러다임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종합하는 체계적인 방법』에서 그는 적절한 문화적 수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이 지역사회의 문화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하였다(<http://www.acdi-cida.gc.ca>). 그의 말을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세가지 지속 가능성 지표영역에다 문화지속성 영역의 지표를 첨가시켜서 지속가능성 지표영역을 네가지 영역으로 확대 설정하여서 계획·설계에 반영시키고자한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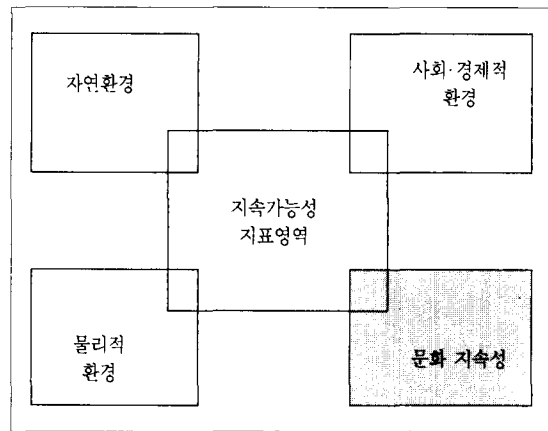


그림 1. 지속가능성의 뉴패러다임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면서 지속가능성 지표 중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물리적 환경 영역에 대한 지표를 제외한 문화지속성 지표의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항목,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내용으로 구분하여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크게 문화경관, 문화행위, 문화의식이란 측면과 전통농촌마을이란 장소성을 결합하여 문화지속성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문화지속성 평가항목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체 경관으로 전통

마을임을 평가할 수 있는 전통문화경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을을 유지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 그리고 전통마을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전통마을의 상징 및 의식 등이다. 평가항목 중 전통문화경관은 문화재 선정대상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는 생태적 접근방법의 농업생산경영행위에 초점을 두어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전통마을의 상징 및 의식은 공동체 결속 측면으로 접근을 하여 평가지표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평가항목 당 세 가지의 평가지표를 든 것은 연구자의 자의적 행위임을 밝혀둔다. 문화지속성 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문화지속성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전통문화경관	건물·구조·대상물	마을 내의 특징적인 건축물의 유무
	역사적 부지와 유적	문화재 및 유적에 대한 현황: 종류와 수
	무형전통문화	마을의 독특한 무형문화: 춤, 민요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	토지이용행위	과거 토지이용 행위와 현재 토지 이용 행위 비교: 차이점과 변화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	마을의 자연체계에 대한 주민의 반응
	순환네트워크	자연자원의 재활용, 물순환방법, 토양개선방법
전통 마을의 상징 및 의식	마을의 상징	상징체계의 유무와 내용, 상징에 대한 주민의 인식정도
	영역경계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의 경계
	공동체 의식	공동체활동의 유형과 참여, 마을의 결속력의 정도

IV. 문화지속성 지표 적용과 평가

1. 선원리 마을의 현황과 특성

경북 영천시 임고면에 위치한 선원리 마을은 높이 200미터의 학산(鶴山)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조선 인조 때 벼슬에서 물러난 정호제가 도연명의 무릉도원에 비유하여 선원이라 명명하여 정착했다.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마을 뒷산의 형태는 학의 모습을 닮았으며,

학의 형태로 본 마을은 학머리, 날개부분 그리고 꼬리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에는 보물 513호로 지정된 철볼좌상을 비롯하여, 중요민속자료 107호로 지정된 정용준씨 가옥과 경상북도 민속자료 87호인 환구세덕사, 문화재자료 230호인 함계정사 그리고 많은 정자와 재실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주민의 경제생활은 과수원경작과 벼농사, 밭농사 등의 농업에 의한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의 호수는 70호 정도이며 인구수는 남녀 각각 100명 정도이며 대부분 노년과 장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전통문화경관 항목의 평가지표

1) 건물·구조·대상물: 선원리 마을은 70여 호의 가구들이 현재 살고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은 한옥의 건물형태 그대로 생활하고 있으나 보일러시설, 부엌, 화장실 등의 개·보수는 많이 된 편이다. 그렇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노년층이어서 그런지 현재의 주택을 다른 형태로 바꾸기를 희망하지 않으며, 지금 상태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젊은 층이 거주하는 몇몇의 집은 양옥으로 새로 건축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마을의 건물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재실이나 정자 등은 그대로 유지,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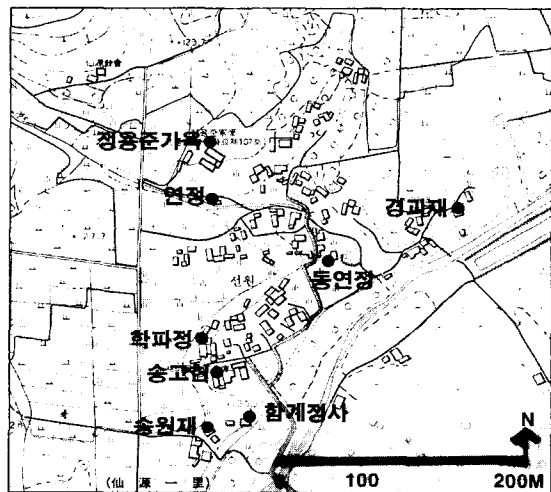


그림 2. 건물, 구조, 대상물 현황

마을에는 1979년 중요민속자료 107호로 지정된 정용준씨 가옥과 경북 민속자료 87호인 환구세덕사, 문화재자료 230호인 함계정사(涵溪精舍) 그리고 이외에 경괴재(景槐齋), 동연정(東淵亭), 송원재(松源齋), 학과정(鶴坡亭), 환고정사(環臯精舍), 대전정사(大田精舍) 등의 재실과 정자가 있다(그림 2 참조).

2) 역사적 부지와 유적: 선원리 마을 내의 중요한 문화적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서 마을뒷산(학산), 마을숲(도래숲), 정자목, 정원(원지원도), 휴식공간(덕소, 조양대) 등이 마을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뒤편 북서쪽에 위치한 학산은 학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하여 학산(鶴山)이라고 한다. 풍수적으로 학이 위치한 곳은 길지라하여 신성시되어 왔다. 마을 뒤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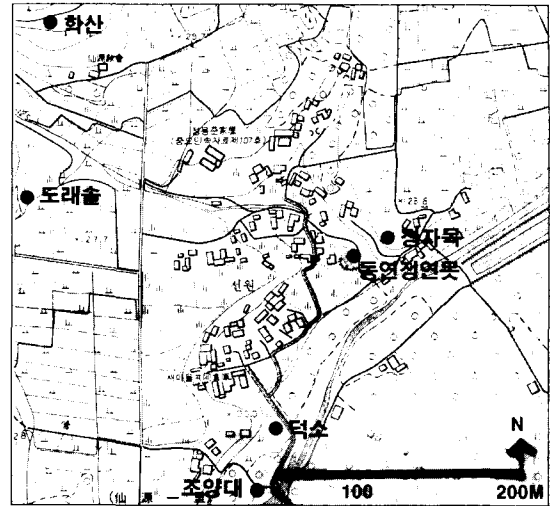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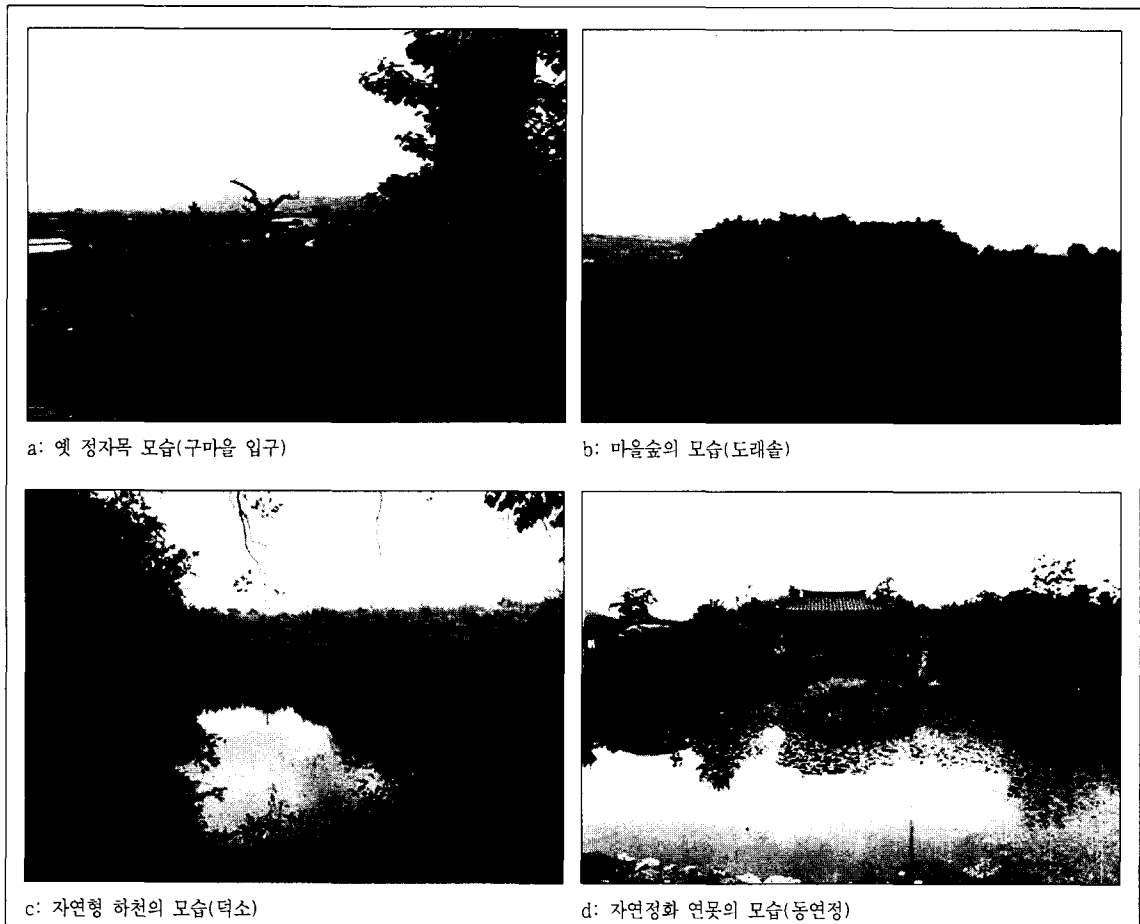


그림 3. 역사적 부지와 유적현황



a: 옛 정자목 모습(구마을 입구)

b: 마을숲의 모습(도래숲)

c: 자연형 하천의 모습(덕소)

d: 자연정화 연못의 모습(동연정)

그림 4. 역사적 부지와 유적전경

편 서쪽으로 논을 지나면 도래솔이 위치한다. 이 도래솔은 선조들의 묘소를 둘러싼 송림으로서 매년 묘사와 제례를 지내고 있는 곳이다. 지금은 주민들의 쉼터 및 주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옛 마을 입구에 위치한 동연정은 정조시대 학자로서 타인의 규범이 되었던 정백휴(1781-1843)선생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건립한 것으로 정자 앞에는 원지원도(圓池圓島)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옛 마을입구의 운치를 더해준다. 또한 옛 마을 입구에는 마을 앞의 전경이 탁 트인 언덕에 정자목이 있는데 마을의 역사를 가늠해줄 수 있는 랜드마크의 기능을 한다. 조양대와 덕소는 먹을 감고 물놀이를 하던 곳으로 지금은 수량의 감소로 많이 축소되고 사과밭 등으로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경관들이 현재에도 잘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그림 4 참조).

3) 무형전통문화: 선원리 마을은 유교정신을 숭배한 양반마을로 명절과 마을사람들이 함께 해야하는 농사절기일 때 협동심을 발휘하기 위하여 농악을 연주하면서 씨름놀이와 줄달리기를 하였으나 독특한 형태로 계승 발전하지는 못했다.

3.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 항목의 평가지표

1) 토지이용행위: 마을의 지형은 산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마을의 이러한 형태의 지형은 거의 변화가 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토지이용은 전·답의 변화와 농작물 종류의 변화는 다소 있었으나 경작지로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토지이용행위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과거 정자목이 위치한 마을 입구는 쇠퇴하고, 새로운 마을 진입로를 만들어서 포장 도로와 마을회관, 마을창고가 입구에 건설되어 있다. 마을 입구와 마을 안길은 포장이 되어 차량이동에 용이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마을의 샛길은 아직까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 많다.

2)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 배산임수의 마을배치와

함께 하천을 중심으로 토지형태에 따른 단위주거의 배치, 마을 숲의 조성과 자연형 하천의 유지와 주변의 녹지보전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유지, 음식쓰레기 등 자연퇴비의 이용과 자급자족 형태의 텃밭으로 자연환경의 유지 등 자연과 함께 동화된 삶을 볼 수 있다. 특히, 정용준씨 주거공간은 본채와 정자의 배치 그리고 개울을 막은 연못의 존재는 자연에 대한 애착과 생활관 그리고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선원리 마을 주민은 자신들이 자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3) 순환네트워크: 선원리 마을은 풍부한 마을 숲과 하천을 유지하고 있어서 동물서식처의 제공과 함께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재순환, 투수성이 높은 도로와 길 그리고 자연정화의 연못을 이용한 물의 순환, 음식쓰레기와 퇴비를 이용한 텃밭의 자연재순환 그리고 안길, 샛길 등 단계적인 도로체계의 구성 등 다양한 형태의 순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자연에 순용하는 물의 순환체계가 돋보였는데, 자연하천과 옛 마을 입구의 연못은 우수와 생활하수 등을 자연정화 처리하는 공간으로 높게 평가된다. 이러한 순환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토지이용행위와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과 함께 이 마을을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4. 전통마을의 상징 및 의식 항목의 평가지표

1) 마을의 상징: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인식하는 마을의 풍수지리형태와 마을의 상징체계는 학의 모습을 닮은 마을 뒷산인 학산 아래, 학이 날개를 펼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학의 형태로 본 마을은 세 부분인 학머리, 날개, 꼬리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들 세부분에서 학머리 부분에는 학머리혈이라 하여 종가인 정용준씨가 옥과 연정이 위치하고 있고, 날개를 펼친 부분에는 정씨 일가들의 일반가옥들이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 차지하며, 학꼬리 부분인 학다리에는 마을입구의 진입부분으로 정자목, 정자, 연못, 마을경계의 의미를 가진다. 즉 마을의 자연형세의 상징에 따라 마을의 크고 작은 공간의 위치가 결정되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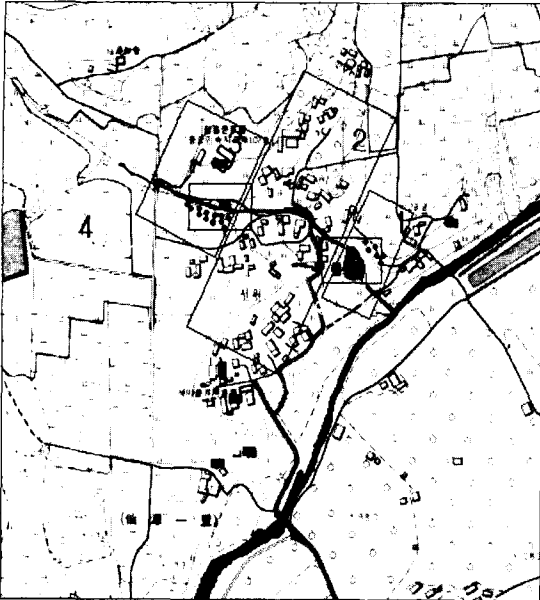


그림 5. 마을의 상징성

범례: 1: 학의 꼬리; 2: 학의 날개; 3: 학의 머리; 4: 그 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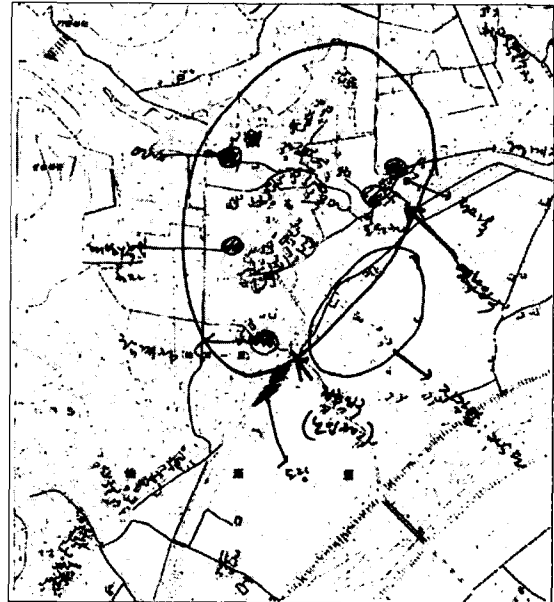


그림 6. 정동진씨 마을인지영역

2) 영역경계: 설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마을의 대한 인지영역을 조사한 바, 주민들이 직접 그린 마을인지영역 표시의 예로서 분석해볼 때, 주민들은 마을의 영역을 자신의 전·답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공간은 마을 아래쪽으로는 동남으로 흐르는 자호천이 경계가 되고 위쪽으로는 학산을 주 경계로 하여 주변의 산들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양옆으로는 구릉을 경계로 인식한다. 생산공간은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주로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였다. 주민들은 대부분 종가의 뒤편 학산 주변의 야산과 들에서 연료림을 채취하여 난방을 하였고, 마을 뒤편의 과수원, 논, 밭과 마을 앞의 과수원 그리고 자호천 건너 과수원, 평천 들에서 양식을 해결하였다. 의식공간은 학산, 도래술 그리고 제례공간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곳곳에 재와 정자가 위치하여 마을의 중요한 경계와 의식 및 교육공간으로의 역할을 한다. 즉 마을공간으로의 인식은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영역뿐만 아니라 생산공간으로서의 자신의 전·답·임야를 그리고 의식공간으로서 재실, 묘소 등을 포함하였으며, 정자의 위치와 마을 앞 자호천이 마을을 경계 지우는데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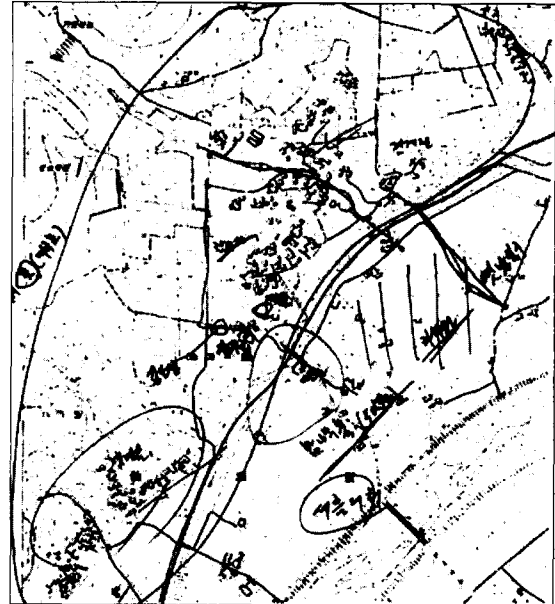


그림 7. 정춘식씨 마을인지영역

3) 공동체 의식: 선원리 마을은 동족마을로서 마을 주민간의 혈연과 지연관계로 인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 유교정신이 문화전통을 유지하는데 큰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 예로 문중회의를

통한 마을의 운영과 유지, 사시제, 기일제, 묘제 등의 제례 등이 있으며 명절에 함께 차례를 지낸다. 또한 두레, 품앗이로 농사일을 서로 도우며 협동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앞 공터에서 씨름놀이 등 마을 주민이 함께 일과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듯 이 마을 주민들은 많은 문화재와 고택을 가지고 있는 자긍심과 함께 예로부터 내려오는 마을공동체 정신으로 일과 놀이를 마을중심으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V. 결론

문화지속성을 전통문화경관,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 그리고 전통마을의 상징과 의식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정성적 평가지표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었다.

첫째, 9개의 지표들은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 농촌 및 전통마을환경, 문화지속성과 문화경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전통문화경관 중간지표로 건물·구조·대상물, 역사적 부지와 유적, 무형전통문화를 지표로 삼았으며,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 중간지표로 토지이용행위,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 순환네트워크를 지표로 삼았으며, 그리고 전통마을의 상징 및 의식 중간지표로 마을의 상징, 영역경계, 공동체 의식으로 각각의 지표를 삼았다.

둘째, 선원리 마을은 마을의 입구변화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향토경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마을의 혁신적 개발을 거부하면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셋째, 선원리 마을은 스스로 지속 가능한 체계와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르고 있으며, 많은 역사적 부지와 건물들, 중요한 민속자원과 문화자원, 전통가옥 그리고 재와 정자 등의 문화재를 양호하게 보전하고 있었다.

넷째, 주민들은 학산과 학머리혈 등 마을입지에 대한 풍수지리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상징성과 정자와 재실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은 마을의 영역을 구성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지역의 문화경관과 토지의 잠재력이 장차 그 속에 살게되는 주민에게 지속적인 거주사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려된다. 특히 지역의 상징과 전체적인 경관구조는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환경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9가지 평가지표가 최근 주거단지계획·설계에 나타나는 것을 고찰하면, 먼저 단지계획에서 보전대상이 되는 문화재를 비롯한 역사성이 있는 요소들을 미리 분석하여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물체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물 흐름을 살려서 시각생태학 측면에서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결속을 위하여 광장과 공원을 아파트 중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과거의 형식에 치우친 외부공간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지속성에 대한 지표를 오늘날의 주거단지계획·설계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는 향후의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문화지속성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지표의 평가는 연구자의 관찰과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정성적이며 질적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보편적인 원칙으로 정립하기에는 기초적인 연구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례 대상지를 점차 늘려가며 또한 지표를 수정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때 우리의 전통마을이 존속하는 중요한 이유를 문화지속성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용문헌

1. 김근호(1987) 한국전통마을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귀곤(1993) 생태도시계획론(에코폴리스의 이론과 실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3. 김한배(1981) 문화경관적 상징성을 체계로 본 한국전통마을의 경관구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박원규 외 3인(1998)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개발방향 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33(3): 115-132.
5. 신용석외 2인 공역(1988) 도시경관·생태론. Michael Hough. City Form and Natural Process. 서울: 기문당.
6. 양병이(1997) 지속 가능한 지표에 의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 환경친화성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32(2): 89-106.
7. 영천향토사학연구회(1997) 골별 제3집. 대구 : 맑음.
 8. 이규인(1997) 환경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념적 모델수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 한필원(1991) 농촌 동족마을 공간구조의 변화와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한필원(1996) 전통마을의 환경생태학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7호.
 11. Almo Farina(2000) The Cultural Landscape as a Model for the Integration of Ecology and Economics. American Institute of Biological Sciences.
 12. Breheny, M and R. Rookwood(1993) Planning the Sustainable City Region in Andrew Blowers(ed.) Planning for Sustainable Environment. London. Earthscan Publication Ltd.:173.
 13. Community Sustainability Resource Institute(1998) Sustainability in action. concern, inc.
 14. Dodge, Jim(1990) Living By Life: Some Bioregional Theory and Practice.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15. Donella Meadows(1998) Indicators and information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ustainability Institute.
 16. Peter Hardi and Stephan Barg(1997)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of current practice. Occasional Pape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7. Robert L. Thayer, jr.(1994) Gray world, green heart. John Wiley & sons, inc. Smith J, *et al.*(1992) Ecological Planning Princip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1999)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method, applications. Hartmut Bossel.
 18. United Nations(1996) Habitat Agenda and Istanbul Declar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19. <http://www.acdi-cida.gc.ca>
 20. <http://www.cr.nps.gov>
 21. <http://www2.cr.nps.gov/tps/briefs/brief36.htm>

원고접수: 2001년 12월 31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2년 1월 24일

3인익명 심사필